

## 마술 무대 시놉시스

**기** 재욱은 마술을 좋아한다.

친한 사람들에게 간간히 보여주면 좋은 이야기를 듣는 등 마술은 재욱에게 좋은 취미이자 장기 중 하나였다. 하지만 4학년이 되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라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재욱은 마술을 포기한다. 재욱은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아야 부모님께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과에서는 축제 때 공연할 사람을 모집한다. 영호는 축제 상금을 나누자며 재욱에게 마술 공연을 제의한다. 재욱은 거절하지만, 영호는 재욱 몰래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욱은 화가 나 영호에게 소리치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다. 일단 시험 공부에 매진하지만, 계속되는 영호의 방해에 결국 마술 연습을 한다. 영호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지쳐버린 재욱은 공부에 방해 받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승** 무대 마술에 자신 있는 재욱은 자신의 루틴을 영호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영호가 연습하는 동안, 재욱은 연습실에서 책상을 펼쳐 공부를 한다. 영호는 거울 앞에서 앞서 알려준 재욱의 동작을 연습하지만, 미숙함에 재욱을 계속해서 일어서게 만든다. 재욱은 영호에게 마술을 가르치며 잠시 즐거워 한다. 시험 당일, 재욱은 영호에게 알려준 마술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망친다.

**전**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남은 시험들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재욱은 연습실에 짐을 찾으러 온다. 현실을 위해서 포기했던 마술이 자신의 현실을 괴롭히자 자신 스스로와 영호가 밉다. 둘은 부딪힌다. 거울에 비친 재욱이 영호를 닮았고, 비난한다. 영호는 결국 마술을 좋아하고 스스로 집중하지 못했던 재욱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한다. 영호는 재욱에게 앞으로에 대해 선택을 요구한다. 영호는 기억을 되짚으며 과거 마술을 포기한 자신을 돌이켜본다. 재욱은 홀로 연습실에 남아 연습을 한다.

**결** 축제 당일, 무대 커튼 뒤에는 영호와 재욱이 나란히 대기하고 있다. 재욱과 영호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추며 긴장을 푼다. 그리고 단상에 오른다. 영호의 뒷모습이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 재욱이 홀로 무대에 있다. 심호흡을 두 세번 하고 웃으며 인사를 한다.